

경배와 찬양	임재 / 예수 열방의 소망 / 하늘위에 주님 밖에 내가 주인 삼은 / 예수 예수 예수	다같이
기도		김태동
성경봉독	전1:2-4, 2:16, 7:2	허영진
말씀	전도자의 깨달음, 허무함	김상범 전도사
응답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 주 품에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전도사
광고 및 환영		안혜진
파송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다같이
권면과 기도		김상범 전도사

전도자의 깨달음, 허무함 (전1:2-4, 2:16, 7:2)

1:2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3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4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2:16,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7: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잠언, 전도서 중에서 결론과도 같은 책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도서를 솔로몬이 가장 노년이 되었을 때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에는 잠언의 지혜에 더하여 솔로몬의 인생 경륜까지 함께 합쳐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살면,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산다는 도덕법칙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우매자는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자로서의 평생 살아보니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이런 발견은 그의 지혜에 대한 목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진정한 가치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전 1:2절에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인 '헛되다' 혹은 '허무하다'가 바로 나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hevel인데, 이는 연기(smoke), 숨/공기(breath), 허영(vanity)를 뜻합니다.
 * Timothy Mackie 목사님, '허무하다' = (1) 일시적이고 덧없다 (2)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이다.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불교의 허무함과 성경의 허무함의 차이: 본질적 허무함(불) vs. 물질세계의 허무함(성경)

성경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이 진정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선과 악,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자유의지, 우연과 같은 일들이 뒤죽박죽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처럼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미스터리한 영역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체가 미스터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허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허무함을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영원함'입니다. (전 1:3-4) 전도자는 세월은 영원한데 우리의 삶은 그에 비해 너무 짧음을 크게 느낀 것입니다.
 * 이 땅 원주민과 우리의 후손 이야기, 옛 학교 및 고향에서 느낀 이질감

전도자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인간의 유한함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전 1:5, 1:7) 그는 해가 반복해서 뜨고 지는 것,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등을 보며 우리 인간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도 세상은 계속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세월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궁극의 평등자, the great equalizer입니다.
 * 나비 애벌레 이야기

둘째, 전도자가 허무함을 느낀 주제는 '죽음'입니다. (전 7:2) 죽음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극복 불가능한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과학으로도 죽음은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죽음도 또 하나의 the great equalizer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 2:16b)

죽은 사람은 대중들의 뇌리에서 너무 쉽게 잊혀집니다. 이는 당시 최고의 명예를 누리던 전도자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전 9:4b)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산 자들에게 '죽음'을 생각하고 살기를 강조합니다. (전 7:2)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죽음을 염두해두고 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일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함은 허무주의와 같은 염세적 허무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바로잡기 위한 깨달음입니다. 세월의 영원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죽음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염두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목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내가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2. 나란 존재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기억되지 않음을 깊이 자각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 내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내 현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방향성이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응답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영혼 평안해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송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오
 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재개 안내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현장예배와 함께 실시간
ZOOM 예배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월부터는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한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 리더 모임

이번 주 금요일 (12월 3일) 7시에는 정기 리더모임으로 모입니다.
금요기도모임은 정기리더모임으로 인해 이번주는 쉽니다.

세례, 입교 및 성찬

12월 12일 (주일) (세례/입교 신청 :오늘까지)
세례/입교 교육 : 12월 4일 오후 2~4시 ZOOM으로
세례/입교 문답 : 12월 11일 오후 3시
성찬: 온라인/ 현장 동시에 (청년 예배 -담임목사님께서 집례)

QT 교제생명의 삶 12월 호구입 안내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5월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체크, 벤모 모두
가능)

겨자씨 간증 모음

우리 교회 매거진 겨자씨에 담을 청년들의 간증 등을 받고 있습니
다. 문의 : 전해나 자매 (hannah950518@utexas.edu)

주일학교 교사모집

영유아부 : 교사, 자원봉사자(아이 돌봄) 모집 (문의 이희정 전도사)
유치부 : 교사 모집 (문의:곽은희 전도사)

PSALM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매월 첫주 제외)
정기 리더모임	매월 첫주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 am
토요 무릎 기도회	토 6:30 am

제 49권 24호
NOV 28
2021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전도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광현	antoine7190@gmail.com
간사	이찬재	leechanjae@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 512 454 1727 / fax _ 512 454 6888
- psalm@akpc.org
- www.akpc.org
-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